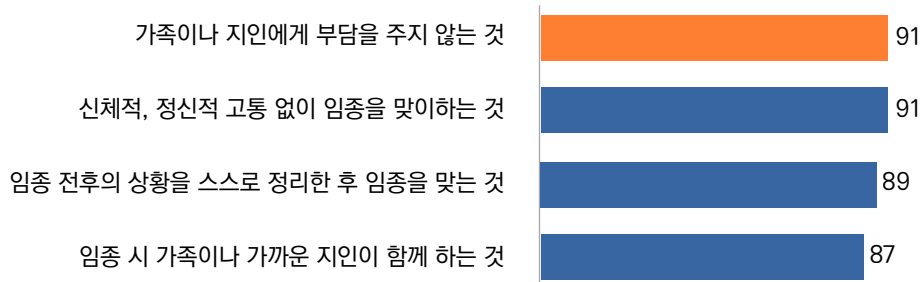




## 좋은 죽음이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!

- ▶ 최근 노년기 삶을 의미있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. 존엄한 생애 마무리와 웰다잉(well-dying)에 대한 노인의 생각을 알아보았다. 노인이 생각하는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해 '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'과 '신체적, 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'이 91%로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였으며, '스스로 정리하는 임종', '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'도 각각 89%와 87%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.

[그림] 노인의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동의율\*\*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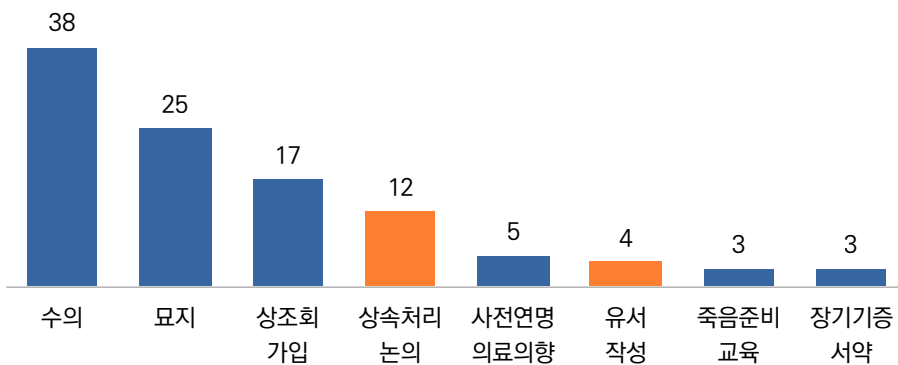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: 보건복지부 '2020 노인실태조사', 2020.11. (전국 만 65세 이상 10,097명)  
 \*\*5점척도로 '매우 중요+중요'의 합

## ◎ 한국노인, '죽음 이후'를 준비하는 비율 매우 낮아!

- ▶ 죽음에 관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. 1위부터 3위까지가 '수의'(38%), '묘지'(25%), '상조회 가입'(17%) 등 주로 장례와 관련한 준비 항목으로 나타났으며, '상속처리 논의'(12%), '유서 작성'(4%) 등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.

[그림] 노인의 죽음 준비 실태 (항목별 준비율, %)



\*자료 출처: 보건복지부 '2020 노인실태조사', 2020.11. (전국 만 65세 이상 10,097명)